

서울~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

- 8월 4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위한 제3자 제안공고
- 경기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·지역 교통편의 개선... '25년 하반기 착공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동부간선도로(의정부시)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(양주시)를 연결하는 “서울~양주 고속도로 사업”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.
 -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,607억원('20.06 가격기준)으로 약 21.6km,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,
 -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~양주시~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,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.
- 이 사업은 '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,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·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,
 - 이후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.
- * 추진절차: 최초제안 → 적격성조사 → 전략환경영향평가 → **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및 제3자 제안공고** →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→ 실시협약 → 공사
 - 향후,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'24년 1월경 민간투자사업자(우선협상대상자)가 선정되면, '25년 하반기 착공하여 '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서울-양주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간선도로가 부족한 양주시,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이 보강되고 지역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천우 (044-201-3897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재 (044-201-3898)



